

러시아 문화연수

본동창회 - 제 47 기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진 붉은 제국 러시아

매서운 눈보라가 사계절 계속해서 몰아칠 것만 같은 동토의 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4대강국의 하나였지만, 공산주의국가라는 이유로 인해 실제적인 지리상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서는 더욱 멀게만 느껴졌던 나라, 그렇긴 해도 영화 “백야”와 “닥터 지바고”의 낭만으로 애뜻하게 기억되기도 하는 곳... 일반적으로 러시아, 즉 구 소련을 생각하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들이다.

연세 AMP 47기의 정기총회가 2003년 7월 15일에 있었다. 이에 앞서 2003년 6월 6일에서 6월 11일(5박6일)까지 러시아 문화연수가 있었다.

인천 영종도 국제 공항을 출발하여 모스크바 세레메체보 국제공항으로 향한 이번 연수 일정은 크레믈린 궁과 붉은 광장, 성바실리 성당, 무명용사의 묘 등을 방문하고 볼쇼이 극장에서 세계최고의 발레 ‘지젤’ 등을 감상하기도 하는 등 다채로운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모스크바 국립대학 방문과 전세 유람선의 야경관광등의 러시아의 면모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Moscow

러시아 내 또 하나의 국가인 모스크바는 면적 17,075천km², 인구 864만이며 영어로 모스

코(Moscow)라고 한다. 유럽러시아 중부, 오카강(江) 지류인 모스크바강 유역에 자리잡고 있다. 불가강과 오카강 사이에 있어 수운(水運)의 중계지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일개 한촌(寒村)으로 발족하여 모스크바공국(公國)의 수도가 되고, 다시 러시아제국(帝國)의 수도가 되어 크게 발전하였다.

러시아혁명 뒤, 다시 수도가 된 모스크바는 소비에트시대에 정치·문화·경제·교통의 중심지로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였고, 1991년 이후 러시아연방의 수도로서, 오늘날 세계 거대 도시의 하나로 꼽힌다.

모스크바는 침엽수림대와 활엽수림대의 경계에 위치하여 부근에서 수공업의 발전을 자극할 만한 원료가 많이 산출되고, 또 부근에 오카강·불가강·드네프르강·돈강 등과 연결되는 하천수로망(河川水路網)이 조밀하여 교통이 편